

특별기고

인터넷 시대 해양정보의 보고(寶庫)

부산 사이버해양박물관 웹사이트 (<http://seaworld.pusan.kr>)

박 한 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1. 서 언

우리 나라는 해양강국이 될 수 있는 좋은 지형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바탕으로 해양진출에 좀 더 많은 국력을 쏟았다면 해양강국으로 성장하여 영국, 스페인 등과 같은 한 때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장보고 대사의 동아시아 해상권 제패 등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해양진출이 없었다. 또한 우리민족은 거대한 중국과 수 천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도 자주권을 빼앗기지 않은 강인함을 보였으나 일본으로부터의 해상침략에는 힘없이 무너져 식민지 지배와 민족분단이라는 오늘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해양력 약화와 함께 자주권의 상실의 주된 원인은 소위 이조시대에 수립한 해금(海禁)정책이나 공도(空島)정책과 같이 해양진출과 역행하는 중앙정책을 편 것에서 유래한다. 결국 이러한 정책들은 입지적으로 활발할 수 있었던 해양활동과 진취적인 해양정신의 발달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었으며 결국 해양력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바다를 기피하는 사상이 아직도 국민 정서 속에 흐르고 있다.

해양의 좋은 입지 조건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입안자의 식견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바다에 대해 많이 알고 바다에 대한 친밀감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바다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유능한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겠고 그들이 자랑스럽게 그 일에 종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예로서 60-70년대에 조선분야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과 함께 우수한 인재가 조선분야에 모인 결과로 오늘날 우리 나라가 조선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부산사이버해양박물관은 21세기의 정보화 및 신해양시대에 부응하여 해양관련 정보를 종합적이고 집약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해양공간으로서 국민들의 해양사상 고취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즉, 인터넷 시대에 바다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보다 많이 확보하여 우리 민족의 내면에 배어있는 해양사상을 일깨워 보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사이버해양박물관은 첨단해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부산시 및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들을 비롯한 해양전문가, 인터넷 관련 기업이 참여하여 두 차례에 걸친 사업을 통하여 완성되었다. 부산사이버 해양박물관은 명실공히 해양전반에 관한 가장 많은 자료와 가장 다양한 메뉴가 있는 사이트로 사료된다. 웹사이트의 URL은 <http://seaworld.pusan.kr>이며 초등학교에서부터 일반 해양전문가에 이르기까지 해양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이다.

본 고에서는 부산사이버해양박물관의 주요 구성내용과 분류체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사이트에는 워낙 방대한 양이 포함되어 있어서 내용소개보

다는 주제로 된 분류체계 중심으로 설명한다.

2. 주요 구성내용

사이버해양박물관은 해양수산에 관한 문서, 그림, 음향 및 동영상 등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쌍방향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미래형 전자박물관이다. 이 사이버해양박물관에는 일반 사이트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메뉴를 포함하여 어린이박물관, 해양도시부산관, 해양과학관, 선박항만관, 해양과 국방, 수산관, 해양개발관, 해양관광문화관, 해양도서관, 해양역사인물관, 독도관 등의 메뉴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해양관련 베희시장을코너를 개설하고 있으며 부산시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실물 해양생물전시관을 사이버 공간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새소식 메뉴에서는 해양관련 새로운 소식들을 2-3일 간격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음 화면은 사이버해양박물관의 초기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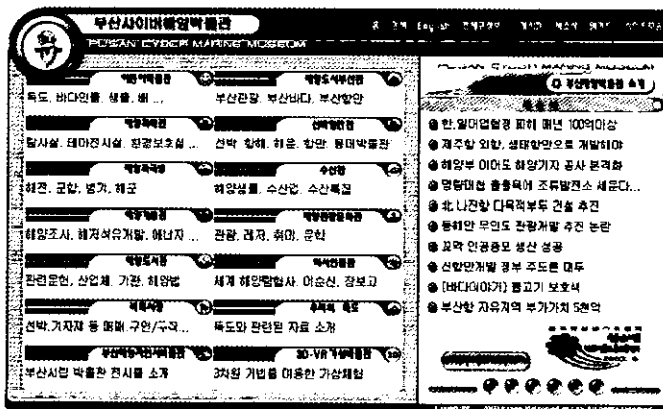
사이버해양박물관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주로 2차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3D-VR 가상 박물관 코너에서는 2차원의 내용을 3차원적으로 재구성함과 아울러 새로운 가상기법을 동원하여 방문자가 실물박물관을 직접 구경하는 것 같은 느낌

이 들도록 만들어져 있다. 특히 이 웹사이트에서는 차세대 검색 및 인공지능 검색 등으로 불리는 자연어처리 검색시스템을 도입하여 방대한 자료에 대한 내용 검색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홈페이지를 영문으로도 볼 수 있도록 시도하였으나 워낙 양이 방대하여 모든 부분을 영어로 서비스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일반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질 한국적인 내용만을 영어로 서비스하고 있다.

대부분의 내용은 그림과 함께 내용설명이 곁들여져 있다. 관련 내용은 기존의 서적이거나 인터넷에 소개된 내용을 기반으로 참여교수들이 직접 집필하였다. 그림, 동영상 등은 기존의 서적, 화보, CD, 비디오테이프, 인터넷 등에서 대부분 인용되었다. 부분적으로는 참여 교수들이 독자적으로 사진을 촬영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완성한 것도 있다.

부산사이버해양박물관에 수록된 자료의 양과 종류는 다음과 같다.

- ◆ 각 해양 분야의 내용 설명 및 그래픽 자료 (그림 20,000매, 문서 20,000매 정도)
- ◆ 비디오 테이프 및 CD-ROM를 이용한 동화상 자료
- ◆ 해양관련 서적 및 정기간행물의 소개
- ◆ 새로운 해양관련 소식



부산사이버해양박물관 메인화면

3. 내용 소개 및 분류 체계

현재까지 해양분야를 총 망라하는 분류체계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참여 교수들이 수집 사례의 많은 토론을 통해 전체 해양분야에 대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등의 분류체계를 수립하였다. 하위 분류체계는 같은 사람의 판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최하위 분류를 미세분류까지만 구성하도록 하였다. 내용 분류와는 별도로 어린이관, 독도관 등과 같은 특별 코너도 대분류의

특별기고 | 부산사이버해양박물관 웹사이트 (<http://seaworld.pusan.kr>)

등급과 동등하게 포함시켰다. 그러나 각 대분류의 세부 분류 및 그 내용을 참여 교수들이 각기 따로 구성하였으므로 다양성은 있으나 일관성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

아래에서는 각 대분류의 하위 분류체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각 대분류의 분류 양이 아주 많으므로 소분류까지만 간략히 소개한다. 그러나 선박분야에 대해서는 본 학회지의 특성상 상세하게 세분류까지 소개한다. 3D-VR가상박물관,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은 지면관계상 소개를 생략하며 다른 웹사이트와 공통으로 있는 메뉴들도 소개를 생략한다.

대분류 1 어린이 박물관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해양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꾸몄다.


어린이박물관의 소분류까지의 분류 체계는 다음과 같다.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미세분류는 지면관계상 생략)
1.1 독도는 우리땅	1.1.1 독도의 역사 1.1.2 독도의 자연 탐방 1.1.3 섬치키기 300년
1.2 바다 인물	1.2.1 충무공 이순신 1.2.2 장보고 1.2.3 외국인의 방문 1.2.4 우리나라 지킴이 1.2.5 세계바다 지킴이
1.3 바다의 이용	1.3.1 수산업 1.3.2 광물자원 1.3.3 에너지자원
1.4 물속 생물	1.4.1 민물 1.4.2 우리나라 바다 1.4.3 바다생물 상식
1.5 물의 오염	1.5.1 오염의 종류 1.5.2 오염의 영향 1.5.3 낙동강 오염 실태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미세분류는 지면관계상 생략)
1.6 여러 가지 배	1.6.1 우리나라 배 1.6.2 세계배의 역사 1.6.3 배의 종류
1.7 해군과 군함	1.7.1 한국의 해군 1.7.2 세계의 해군 1.7.3 군함의 종류
1.8 해양 자료 보기	
1.9 왜 일까요?	
1.10 게임방	
1.11 퍼즐방	

어린이 박물관

바다 사랑을 떠나볼까요?



우리 나라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옛날부터 바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바다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계속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다에는 풍부한 수산자원과 광물자원 등이 숨어 있고, 우리 나라 경제의 대부분이 바다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또한 해양이 아직 많은가요? 자, 바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함께 살펴!



어린이박물관의 초기화면 그림

대분류 2 해양도시 부산관

부산은 해양도시이며 관광도시이다. 부산에 오면 태평양이 흰하늘 한 눈에 들어오며 오륙도를 오고 가는 각종 선박들을 볼 수 있다. 싱싱한회는 부산의 먹거리 관광의 대표적인 예이며 해운대 및 태종대는 썰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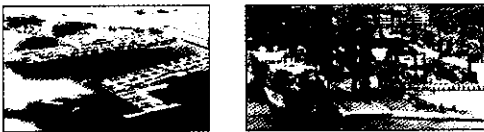
부산의 바다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위성으로 본 모습은 어떠한가 해류나 수심은 어떻게? 어느 바닷가를 산책하면 좋을까? 부산항의 역사는 매우 오래 되었다고 하는데 옛날의 부산항의 모습은 오늘날과 어떻게 다를까? 이런 물음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는 사이트로 구성하였다.

해양도시부산관의 소분류까지의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다.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미세분류는 지면관계상 생략)
2.1 관광	2.1.1 관광객 2.1.2 관광5거리
2.2 부산의 바다	2.2.1 바다의 모습 2.2.2 바다의 날씨 2.2.3 해양학적 특성 2.2.4 환경특집·낙동강
2.3 부산의 항만	2.3.1 부산항의 개요 2.3.2 부산항의 역사 2.3.3 부산항의 항세 2.3.4 부산의 항만

2.3 부산의 항만

이 곳에서는 부산항의 과거의 현재, 그리고 세계속에서의 부산항의 위상을 살펴볼 수 있다. 부산항의 침주해 들어오는 항만들은 국제여객부두, 일반 부두 및 컨테이너 부두로 구성되어 있는 특성을 비롯하여 어선이 집중되어 있는 남항, 그리고 감천항 및 디데포항 등이 있으며 뉴질랜드의 시대를 거슬러가며 가락도 신항만을 만들고 있다.



해양도시부산관의 부산의 항만 코너에 있는 화면

대분류 ③ 해양과학관

해양과학관은 물리해양학, 생물해양학, 지질해양학, 화학해양학 등의 해양과학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해양과학관은 이러한 내용들을 실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즉, 과학탐사실, 해양관련 주제별 테마전시실, 시청각실, 환경보호실, 우리바다, 해양관련 교육을 할 수 있는 사이버 강의실, 우리 나라의 바다, 그리고 궁금하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묻고 답하기(Q&A)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과학관의 소분류까지의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다.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미세분류는 지면관계상 생략)
3.1 탐사실	3.1.1 위성 탐사 3.1.2 해상 탐사 3.1.3 수중 탐사
3.2 테마 전시실	3.2.1 해저 산맥 3.2.2 심해 열수공 3.2.3 심해 생물 3.2.4 엘니뇨/라니냐 3.2.5 해류 3.2.6 남극과 얼음 3.2.7 기후 변화 3.2.8 해양 생태계 3.2.9 산호초 3.2.10 해양 백화점 3.2.11 국제해양의해
3.3 시청각실	3.3.1 해양생물 특집 3.3.2 장비 전시실 3.3.3 영화관
3.4 환경보호실	3.4.1 오늘의 지구 3.4.2 적조 3.4.3 유류유출 사고 3.4.4 해안 파괴 3.4.5 어획량 감소 3.4.6 지구 변화
3.5 우리 바다	3.5.1 동해 3.5.2 서해 3.5.3 남해
3.6 사이버 강의실	3.6.1 사실과 정보 3.6.2 바다와 기후 3.6.3 사이버 대학 3.6.4 추천사이트모음
3.7 묻고 답하기	

해양과학관

해양과학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해양과학관은 탐사실, 해양관련 주제별 테마전시실, 시청각실, 환경보호실, 우리바다, 해양관련 교육을 할 수 있는 사이버 강의실, 그리고 궁금하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묻고 답하기(Q&A) 코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양과학관 초기화면 그림

특별기고 | 부산사이버해양박물관 웹사이트 (<http://seaworld.pusan.kr>)

대분류 ④ 선박항만관

선박항만관은 선박, 해운, 항해, 항만에 관한 분야를 소개하는 관이다. 선박에 관한 코너에서는 선박에 대한 일반지식, 선박의 발전사, 선박의 종류, 우리의 전통선박에 관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으며, 그림창고를 통해 약 700여점의 선박관련 사진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본 학회지의 특성에 맞추어 선박에 관한 내용은 보다 자세히 소개하며 분류체계도 세분류까지 예시하고자 한다.



본 코너는 선박에 대한 일반지식, 선박의 발전사, 선박의 종류, 항해, 해운, 항만, 항로표지 등에 관한 자료가 수록 되어 있으며, 그림창고를 통해 약 700여점의 사진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선박항만관의 초기화면 그림

선박의 일반 지식 코너

여기서는 선박에 관하여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을 조선공학적 입장에서 선박의 개요, 선박의 추진원리, 선박의 구조, 선박의 건조과정으로 분류하여 소개하였다. 선박의 개요에서는 선박의 크기와 주요 치수, 선박의 부양원리, 그리고 선형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선박의 추진원리에서는 선박의 추진장치와 엔진 그리고 조타장치를 설명하였다. 선박의 구조에서는 선박 전체의 개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선을 예로 들어 선체 각부의 명칭과 위치, 용도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하였으며, 선박의 건조과정에서는 일반 조선소에서 선박이 만들어지는 전체 건조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선박의 발전사 코너

선박의 발전사에서는 먼저 원시시대부터 최근까지 인류역사와 함께 사용되어온 선박의 변천과정을 알아보고 선박과 관련하여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이야기를 소개한다. 그리고 미래의 선박에서는 현재 개발되고 있거나 계획중인 각종 미래형 선박에 대하여 초고속선을 위주로 소개한다. 국내 조선산업사는 옛부터 면면히 내려온 국내의 조선기술이 해방 이후 산업성장기를 맞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세계 최고의 조선산업국을 이룩해온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고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의 우리의 전통선박의 발달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의 전통 선박이라는 코너에서 정리하였다.

선박의 종류 코너

일반적으로 선박을 사용 목적에 따라 크게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이 다섯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각종 화물을 싣고 다니는 화물선, 사람이나 승용차를 싣고 다니는 여객선, 바다에서 물고기 등을 잡아 올리는 어선, 연구나 실습 등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되어진 특수목적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함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군함을 제외한 각종 선박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군함에 대해서는 사이버 박물관 내에 별도로 구축된 해양과 국방관에서 다루게 된다.

우리의 전통 선박 코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에 정착한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해상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으며, 배 만들기에 능숙한 솜씨를 가지고 있었다. 고대의 조선기술은 군선(軍船)의 건조를 통하여 발전한다고 보면 우리 나라에서도 국가의 주도하에 조선술이 발달한 것을 알 수 있고 동원된 민간 조선기술자들에 의해 민간의 선박도 꾸준히 발전할 수 있었다. 신라의 장보고, 고려의 최무선, 조선의 이순신 장군 등이 활약한 역사와 함께 튼튼하기 그지없는 고려의 군선, 임진왜란 때 종횡무진 활약한 거북선 등 세계 조선사에 남을 훌륭한 배들이 등장하고 있다. 서구에 비해 아주

짧은 근대 조선산업사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유구한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오늘날 우리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조선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유구한 전통을 지닌 우리의 전통 선박에 대하여 시대 순으로 상세히 살펴본다.

다음은 선박에 관한 세분류까지의 분류체계이다.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미세분류는 지면과계상 생략)
4.1 선박	4.1.1 선박의 일반 지식	4.1.1.1 선박의 개요 4.1.1.2 선박의 추진 4.1.1.3 선박의 구조 4.1.1.4 선박의 건조방법
	4.1.2 선박의 발전사	4.1.2.1 선박의 변천 4.1.2.2 역사 속의 선박 4.1.2.3 미래의 선박 4.1.2.4 국내 조선산업사
	4.1.3 선박의 종류	4.1.3.1 화물선 4.1.3.2 여객선 4.1.3.3 어선 4.1.3.4 특수목적선 4.1.3.5 군함 4.1.3.6 그림참고
	4.1.4 우리의 전통 선박	4.1.4.1 고대의 배 4.1.4.2 고려시대의 배 4.1.4.3 조선시대의 배 4.1.4.4 근대의 전통 선박

선박항만관의 항해코너에서는 항해장비, 승무원, GPS시스템, 해상생존기술에 관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해운 코너에서는 해운의 역할, 한국의 해운력, 세계해운루트, 정기선 운항, 부정기선 운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한편 항만코너에서는 항만의 역할, 한국의 항만, 세계의 항만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다.

다음은 항해, 해운, 항만에 관한 소분류까지의 분류체계이다.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미세분류는 지면과계상 생략)
4.2 항해	4.2.1 항해장비 4.2.2 승무원 4.2.3 GPS 시스템 4.2.4 해상생존기술
4.3 해운	4.3.1 해운의 역할 4.3.2 한국의 해운력 4.3.3 세계 해운루트 4.3.4 정기선 운항 4.3.5 부정기선 운항
4.4 항만	4.4.1 항만의 역할 4.4.2 한국의 항만 4.4.3 세계의 항만

대분류 5 해양과 국방

해양과 국방관에서는 해군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곳으로서 해전, 군함, 해군의 병기, 세계의 해군, 한국의 해군 등으로 크게 분류하여 해당되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해전코너에서는 고대, 근대, 현대에 있었던 세계적인 주요 해전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고대,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한국전쟁기에 있었던 주요 해전을 소개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해전에 대한 전망을 설명하고 있다. 군함코너에서는 수상함과 잠수함의 발전사 및 여러 가지 종류의 군함의 종류를 소개하고 있다. 해군의 병기 코너에서는 대함병기, 대공병기, 대지병기, 대잠병기, 전자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세계의 해군 코너에서는 해군을 대양해군, 지역해군, 연안해군으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해군력과 국력의 중요성을 다루었으며 마지막으로 각국의 현재 해군력의 정도를 비교하였다.

다음은 해양과 국방관의 소분류까지의 분류체계이다.

특별기고 | 부산사이버해양박물관 웹사이트 (<http://seaworld.pusan.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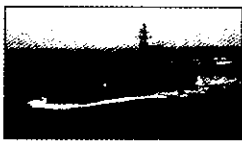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미세분류는 지면관계상 생략)
5.1 해전	5.1.1 세계해전의 역사 5.1.2 한국해전의 역사 5.1.3 미래의 해전
5.2 군함	5.2.1 군함의 발전사 5.2.2 군함의 종류
5.3 해군의 병기	5.3.1 대함병기 5.3.2 대공병기 5.3.3 대지병기 5.3.4 대잠병기 5.3.4 전자 시스템
5.4 세계의 해군	5.4.1 해군의 분류 5.4.2 해군력과 국력 5.4.3 해군력의 중요성 5.4.4 각국의 해군력
5.5 한국의 해군	5.5.1 한국해군의 역사 5.5.2 한국의 해군력 5.5.3 미래의 한국해군



경유함인 천지함 (57)



잠수함 구조함 청해진함



한국의 상륙함 (681)



209형 한국의 잠보고급 잠수함

해양과 국방관에 있는 그림의 한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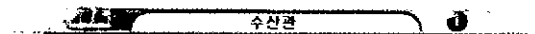
대분류 ⑥ 수산관

수산관에서는 해양생물, 수산업, 수산특집에 관하여 소개하는 코너이다. 먼저 해양생물에 관한 코너에서는 해조류와 무척추동물, 미생동물, 두족동물, 어류, 고등척추동물에 관해서 소개한다. 다음으로는 수산 동식물의 어획, 채취, 증·양식, 가공 처리에 관한 일을 영리의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 수산업, 즉, 어선어업, 양식업, 가공업 세 가

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 수산특집에서는 몸에 좋은 건강수산식품, 물고기의 구조와 병에 대해 알아보는 물고기교실, 각종 생선정보를 다루고 있다.

다음은 수산관의 소분류까지의 분류체계이다.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미세분류는 지면관계상 생략)
6.1 해양생물	6.1.1 해조류 6.1.2 무척추동물 6.1.3 미생동물 6.1.4 두족동물 6.1.5 어류 6.1.6 고등척추동물 6.1.7 한국의 해양생물
6.2 수산업	6.2.1 어선어업 6.2.2 양식업 6.2.3 가공업
6.3 수산특집	6.3.1 건강수산식품 6.3.2 물고기 교실 6.3.3 생선 정보



수산관의 초기화면 그림

대분류 ⑦ 해양개발관

해양개발이란 해양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안전과 환경을 지켜가면서 해양을 인류에 도움이 되도록 공학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해양개

발을 통해 동물성 단백질 식량 및 광물자원의 장기·안정적 확보, 해수 및 해양에너지 자원의 개발, 해양공간의 다각적인 활용, 과학기술의 진전, 새로운 산업으로서 경제발전 선도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개발의 분야는 매우 광범위하지만 이 해양개발관에서는 크게 해양조사, 해저석유 개발, 해양에너지자원 개발, 해양공간의 이용, 해양생물자원 개발, 해안항만 개발 등으로 분류하여 관련 내용을 수록하였다.

해양조사 코너에서는 해상의 기상, 파도, 해류, 수심, 수온, 염분, 해저지형과 지질, 수중음향, 오염도 등 해양개발이나 해양오염 방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획득하고 이것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해양조사선, 잠수조사선, 관측부이(buoy) 등을 소개한다. 또한 최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인공위성에 의한 원격탐사 등의 첨단 탐사기술을 해양조사에 활용하는 사례를 소개한다.

해저석유개발 코너에서는 해저에 있는 석유 및 가스를 탐광하고 생산하기 위한 유정 굴삭기술(Drilling), 굴삭한 유정을 장기간 생산가능하게 하는 생산기술(Production), 기타 해양에서의 석유·가스 개발에 필요한 기술 등을 소개하되 주로 해저석유 및 가스개발을 위한 주요 수단인 여러 가지 해양구조물을 종류별로 소개한다.

해양에너지 자원코너에서는 금속광물자원, 비금속광물자원, 해양에너지, 해수용존자원, 미래 및 기타 자원 등에 대하여 알아본다.

해양공간은 오래 전부터 해상수송, 항만, 어업의 터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최근에는 도시 주변의 친수공간(waterfront) 개발을 통해 근대적인 기능을 갖춘 새로운 도시의 건설과, 바다가 가진 쾌적성을 요구하는 해양 레크레이션 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여 해양공간의 이용은 점점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해양공간 이용 코너에서는 이용기술 및 공법, 생활공간, 생산·산업공간, 교통·수송공간, 레저공간, 저장공간, 증양식공간 등에 대해서 소개한다.

항만은 해륙의 수송의 중계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육송된 화물을 배에 싣고 수송된 화물을 육양해서 후송하는 곳이다. 해안항만 개발 코너에서는, 방파 및 방조제, 안벽 및 잔교, 돌핀 및 부표, 항만 시설, 항만기기, 간척사업 등에 대해서 소개한다.

해양공사는 크게 준설·매립, 지반개량, 해저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부설, 해양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해양공사 및 작업선 코너에서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소개와 아울러 이러한 해양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작업선에 대해서 소개한다.

미래학자들은 21세기를 해양혁명의 시대로 예견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해양자원 개발과 해양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미래 해양개발 코너에서는 해양조사, 석유개발, 자원개발, 해양공간, 항만개발, 공사 및 작업선 분야에 대해 제기된 미래의 문제를 소개하는 코너이다.

다음은 해양개발관의 소분류까지의 분류체계이다.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미세분류는 지면관계상 생략)
7.1 해양조사	7.1.1 수중음향 7.1.2 해양조사기기 7.1.3 인공위성 7.1.4 관측부이 7.1.5 해양조사선 7.1.6 잠수정 7.1.7 잠수기술
7.2 해저석유개발	7.2.1 개발 과정 7.2.2 굴착장비 7.2.3 고정식구조물 7.2.4 유연식구조물 7.2.5 부유식생산시설 7.2.6 부체위치 유지 7.2.7 극지구조물 7.2.8 구조물해난사고
7.3 해양에너지 자원	7.3.1 금속광물자원 7.3.2 비금속광물자원 7.3.3 해양에너지 7.3.4 해수용존자원 7.3.5 미래 및 기타 자원

특별기고 | 부산사이버해양박물관 웹사이트 (<http://seaworld.pusan.kr>)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미세분류는 지면관계상 생략)
7.4 해양공간이용	7.4.1 이용기술&공법 7.4.2 생활공간 7.4.3 생산·산업공간 7.4.4 교통·수송공간 7.4.5 레저공간 7.4.5 저장공간 7.4.6 증·양식공간
7.5 해안항만 개발	7.5.1 방파 및 방조제 7.5.2 안벽 및 잔교 7.5.3 돌핀 및 부표 7.5.4 항만시설 7.5.5 항만기기 7.5.6 간척사업
7.6 해양공사 및 작업선	7.6.1 준설매립 7.6.2 해저지반개발 7.6.3 구조물설치 7.6.4 해저케이블 7.6.5 해저 파이프라인 7.6.6 작업선
7.7 미래 해양개발	7.7.1 해양조사 7.7.2 석유개발 7.7.3 자원개발 7.7.4 해양공간 7.7.5 항만개발 7.7.6 공사 및 작업선



여기서는 해저석유개발과 관련한 거의 모든 지식들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해저석유개발 코너의 초기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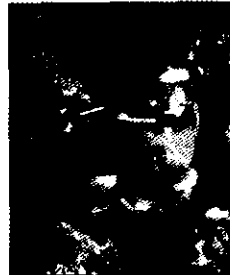
대분류 8 해양관광문화관

지구촌 관광객의 85%가 매년 바다를 찾아서 떠난다고 한다. 한 인간의 탄생이 엄마 자궁 속의 양수에서 시작했기 때문일까?

해양관광문화관에서는 해양관광관, 해양레저관, 해양취미관, 해양문학관으로 나누어 정보를 제공



해상레저



해중레저



해저레저

해양문화관광관의 해양레저관련 그림

다음은 해양관광문화관의 소분류까지의 분류체계이다.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미세분류는 지면관계상 생략)
8.1 관광	8.1.1 관광객 8.1.2 한국해양관광 8.1.3 세계 해양관광
8.2 해양레저	8.2.1 해상레저활동 8.2.2 해중레저활동 8.2.3 해저레저활동
8.4 해양취미	8.4.1 해양주제우표 8.4.2 해양주제노래
8.5 해양문학	8.5.1 해양문학소묘 8.5.2 해양소설문학 8.5.3 해양시문학 8.5.4 해양기행문학 8.5.5 해양논픽션

하며 특히 앞으로 중요한 산업인 해양관광산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주목할만한 것은, 해양분야의 한 원로 교수님이 평생동안 모은 선박과 해양인물 관련 우표 2000점 이상을 사이버해양박물관 사업에 기증하여 해양취미 코너에서는 전시되고 있다. 옛날의 북한 관련 우표도 전시되고 있다.

대분류 ⑨ 해양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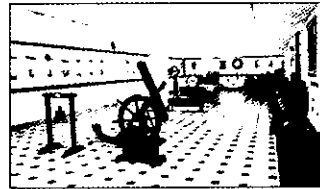
해양도서관에는 각종 관련문헌, 관련 산업체, 관련 기관 등이 소개되며, 해양법에 관해 법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자연과 관련된 비디오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국내외에 소개된 테이프를 수집하여 VOD 형태로 구축하였다. 그러나 도서관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관이 되기에는 너무도 미흡하며 지금은 단지 자료실 정도의 내용이다.

다음은 해양도서관의 소분류까지의 분류체계이다.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미세분류는 지면관계상 생략)
9.1 관련 문헌	9.1.1 해양과학 9.1.2 선박 9.1.3 해양과 국방 9.1.4 해양개발 9.1.5 역사인물
9.2 관련 산업체	9.2.1 국내 산업체 9.2.2 해외 주요 산업체
9.3 관련 기관	9.3.1 국내 관련 기관 9.3.2 해외 관련 기관
9.4 해양과 법	9.4.1 해양법 9.4.2 해양관련법률의 주요골 자와 연혁 9.4.3. 한국과 바다의 국제
9.5 VOD	
9.6 Animation	
9.7 해양도서관 (외부검색)	

해양도서관

해양도서관에는 각종 관련문헌, 관련 산업체, 관련 기관 등이 소개되며, 해양법에 관해 그 전문을 수록했습니다.
특히 자연과 관련된 비디오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국내외에 소개된 테이프를 수집하여 VOD 형태로 구축하였습니다.



해양도서관의 초기화면 그림

대분류 ⑩ 역사인물관

역사인물관에서는 세계적인 해양탐험을 해온 역사를 시대별로 소개한다. 또한 국내 해양인물중에서 으뜸가는 충무공 이순신과 해상왕 장보고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다음은 역사인물관의 소분류까지의 분류체계이다.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미세분류는 지면관계상 생략)
10.1 세계 해양탐험사	10.1.1 고대 10.1.2 대양 항해시대 10.1.3 해양학의 탄생 10.1.4 과학혁명 10.1.5 심해 탐사 10.1.6 우리 역사와 바다
10.2 충무공 이순신	10.2.1 충무공의 생애 10.2.2 거북선의 건조 10.2.3 주요 해전 10.2.4 유품과 유적 10.2.5 관련 자료
10.3 해상왕 장보고	10.3.1 장보고의 생애 10.3.2 청해진 10.3.3 해양경영 10.3.5 유물 및 유적 10.3.6 관련자료



역사인물관의 초기화면 그림

대분류 Ⅲ 우리의 독도

독도는 근년에 발효된 200해리 경제수역으로 인해 더욱 더 국민들의 관심이 되고 있다. 독도는 단지 산업적인 측면이상의 국민 정서상의 문제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독도관에서는 독도에 대한 자연환경 및 역사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시에 독도의 가치 및 영유권 문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3D-VR 가상박물관 코너에서는 독도문제에 대한 토론방도 갖추어져 있다.



장군바위



해식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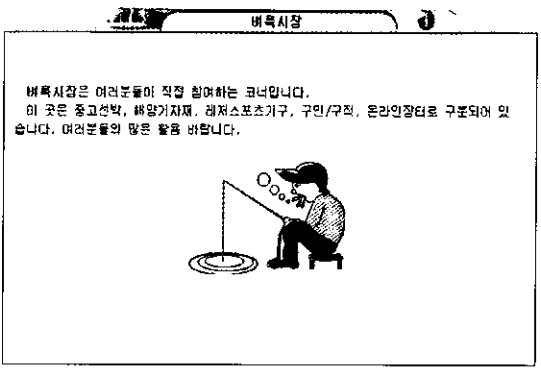
독도관에 있는 자연경관 그림 중의 하나

다음은 독도관의 소분류까지의 분류체계이다.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미제분류는 지면관계상 생략)
11.1 독도의 바다	11.1.1 독도의 해양환경 11.1.2 독도의 수산자원
1.2 역사 속의 독도	11.2.1 민족영토인 독도 11.2.2 영유권 논쟁 11.2.3 현재의 독도
11.3 독도의 가치	11.3.1 경제적 가치 11.3.2 군사적 해양학적 가치 11.3.3 지질학적 가치 11.3.4 해양이용상의 가치
11.4 영유권 논쟁	11.4.1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11.4.2 국제법적 고찰 11.4.3 한국측 주장(1) 11.4.4 한국측 주장(2) 11.4.5 한국측 주장(3)
11.5 독도와 일본	
11.6 독도관련 자료	
11.7 관련사이트	

대분류 Ⅳ 벼룩시장

벼룩시장 코너에서는 해양에 관련된 물품, 즉 중고선박, 해양기자재, 레저스포츠기구 등을 인터넷을 통해 사고 팔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구인·구직정보 및 생활정보 등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벼룩시장코너의 초기화면

다음은 베틀시장 코너의 소분류까지의 분류체계이다.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미세분류는 지면관계상 생략)
12.1 중고선박	12.1.1 중,대형선 12.1.2 소형 및 바지선 12.1.3 선박 엔진
12.2 해양기자재	12.2.1 항해 통신장비 12.2.2 기관장비 부속품
12.3 레저스포츠기구	12.3.1 레저장비 12.3.2 스포츠장비
12.4 구인/구직	12.4.1 해상승무원 12.4.2 선박수리업 12.4.3 조선업 12.4.4 해운항만 12.4.5 무역업 12.4.6 기타업
12.5 해양생활정보	12.5.1 해양도서 12.5.2 해상관광 12.5.3 간 만조 12.5.4 바다의 날씨

4. 결 언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은 역사의 경험에서 나온 말이다. 고대에서는 페니키아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카르타고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그러했고 중세에는 사라센 사람들, 근세에 들어와서는 스페인, 포르투갈 사람들에 이어 화란 사람들과 영국 사람들로 이어지는 해양강국들의 역사가 그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우리민족도 가야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까지 해양력과 해양정신이 대단했다는 기록들이 많다. 통일신라의 대업을 이루었던 문무대왕이 자신의 시신을 동해 바다에 묻어달라고 한 유언을 보더라도 그 당시에는 국민들이 얼마나 해양과 친숙했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해양정신이 장보고 대사의 동아시아 해상권 제패의 뿌리가 되었을 것이며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의 해양선호사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조시대에 와서 해양천시 및 퇴조라는 암울한 시기가 있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해양진출의 새로운 도약기를 맞고 있는 듯하다. 세계 최고의 조선 대국으로 성장한 것이 하나의 좋은 예가 되며 이것은 우리 민족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해양정신을 표출한 것이다. 또한 태생적으로 바다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최고 통치권자에 의해 해양수산부의 탄생을 가져왔으며 또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를 유지하여 해양분야의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새로운 흐름이 아닐까 한다.

해양입국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을 바다와 친숙하도록 해야 한다. 부산사이버해양박물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해양시대와 인터넷 시대를 접목하여 일반 국민들의 해양사상 고취에 기여하고 또한 새로운 해양문화를 발흥시키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다.

부산사이버 해양박물관에는 평면적인 내용만 해도 500페이지 두께의 책으로 환산하여 50권이 훨씬 넘는 방대한 양이다. 이렇게 방대한 것을 짧은 시기에 완성하겠다고 시도한 것 자체가 어쩌면 선부분 도전이었는지 모른다. 따라서 아직도 해양박물관 사이트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산재되어 있으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대해처럼 넓게 널려있다. 그러나 이 사이트가 인터넷 시대에 맞추어 해양을 종합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해양을 공부하거나 정보를 얻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가치 있는 시도가 된 것으로 사료된다.

사이버해양박물관 사이트에는 강원도 산골의 고사리 손을 가진 어린 꼬마에서부터 수십 년간 해양분야에 종사한 분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의 찬사와 함께 질척이 쏟아졌다. 이 사이트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많은 충고와 조언이 필수적이다. 부산사이버해양박물관의 발전을 위해 조선 및 해양공학 분야에 계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을 기대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